

	성균관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회 의 명	제32차 성균관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일 시	2021. 4. 20.(화) 15:30	장 소	600주년기념관 3층 제1회의실
참석위원	안대회, 안희준, 석창성, 김은상, 박동희, 김중환, 강보라, 심재용, 전미희 평의원 / 정덕영, 오광현 평의원 위임장 제출 (이상 총 11명)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 김경일 과장, 유동석 팀장(재무팀) 배석		
불참위원			

1. 개 회

- 석창성 의장이 총11명의 평의원중 9명이 참석하고 2명은 위임장을 제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제32차 대학평의위원회 개회를 위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다.
- 석창성 의장이 학생 평의원인 제52대 총학생회장 박동욱, 전우중 2명이 임기 만료 되고 후임으로 강보라, 심재용 평의원이 참여하게 되었음을 알리다. 두 평의원은 각자 자기 소개하다.
- 석창성 의장이 직전 회의가 서면결의였으므로 이번 전차 회의록은 총 2개를 확인해야한다고 하고, 우선 제30차 회의록 확인을 요청하여 평의원 모두가 첨부된 회의록을 묵독하다. 김은상 평의원이 회의록 중 일부 오타 (의장장→의장)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고, 제29차와 30차 회의에서 논의된 온라인 수업 Zoom 시스템 도입 관련 진행 상황을 문의하다.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현재 정보통신팀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다.
- 김중환 평의원이 회의록 중 일부 오타 (대의원→평의원)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다.
- 제30차 회의록은 일부 오타 수정 요청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재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평의원 전체가 확인한 후 원안대로 채택하다.
- 석창성 의장이 제31차 서면결의 회의록 확인을 요청하여 평의원 모두가 첨부된 회의록을 묵독하다. 석창성 의장이 31차 서면결의에 대한 배경 설명을 요청하여 김경일 과장이 삼성전자사내공과대학 설립 승인 과정에서 급작스러운 교육부의 대학 평의위원회 추진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서면 결의를 받게 되었다고 설명하다. 석창성 의장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삼성전자사내전자공과대학의 도입 배경과 시기, 운영 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하다. 안희준 평의원이 성대 교수들의 참여 여부를 문의하고,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현재 일부 참여하고 있고, 2학기부터 우리 대학에서 수업이 시작되면 더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고 하다. 전미희 평의원이 인원을 묻고,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70여명 정도라고 답하다.
- 제31차 회의록은 기재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평의원 전체가 확인한 후 원안대로 채택하다.

2. VISION2030 수립(안) 심의

- 석창성 의장이 VISION2030 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내용 설명하다.
- 안대회 평의원이 VISION2030 수립(안) 서두에 나오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부분은 잘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본 안 수립을 위해 단과대학까지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원들이 어떠한 의견을 내었는지 궁금하다고 하며 10년 후 목표치가 다소 과도하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견 제시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제시된 지표 대부분이 연구 관련 사항이라 다양성이 부족한 듯 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하며, 탑티어에 속한 대학들 다수가 연구력이 높은 대학인 현실을 말하다. 연구 관련 지표가 많다고 해서 우리 대학이 교육을 포기하고 연구만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며, 구성원들의 자기주도적 능력 배가를 위해 연구 경험에 기반한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지향점이라고 하다. 그리고 인문분야에서 융복합 관련 방식 등의 문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해당 학문 분야에서 심도있는 고민을 더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다. 우리 대학의 위상이 과거보다 많이 향상되었는데, 상위 수준으로 갈수록 달성 가능한 목표치의 상향 폭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다. 그러나 예전 비전 2010이나 비전 2020을 수립할 때 제시한 목표치도 당시 과도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으나 많은 지표를 달성한 것으로 볼 때 이번 비전 2030도 우수한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 피력하다. 중요한 것은 전체 추진 로드맵 중 최초 3년이라고 보는데, 이 기간 중 달성해야 할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동력이 급속히 상실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드는 관계로 비전의 최초 3년간 목표 달성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다.
- 김중환 평의원이 비전 수립 노고를 치하하고, 비전2030이 우리 대학의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임에 동의하면서 안대회 평의원이 제기한 목표 달성 가능 여부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하다. 우리 대학 뿐 아니라 전 세계 대학들 모두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 우리가 약간 높게 설정한 목표치를 어렵게 달성했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 20위권 대학에 진입하는 것을 장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고,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목표치를 설정했으면 한다는 의견 피력하다. 그리고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여 연구비가 1조가 되면 우리 대학이 활용 가능한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다고 하고, 교수 임용자 중 우리 대학 출신이 많아지면 학생들에게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제시된 목표치가 10년 뒤에도 유효할지는 알수가 없어 일단 현재 기준으로 세계 20위권 수준의 대학을 표준으로 삼아 설정한 것이라고 하고, 타 경쟁대학 수준 등을 보았을 때 우리 대학이 목표하는 상향의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하다. 우리 대학은 현재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선진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원 채용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신진 교수들이

진입하면 연구 분야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고 하다.

- 김중환 평의원이 대학이 발전기금 목표치 달성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하고, 부가하여 현재 기획조정처에서 목표하고 있는 5,000억원 추가 예산 확보 가능여부를 문의하다.
- 유동석 재무팀장이 예전 본인이 기획조정처 근무시 수립한 중장기 예산 확보 계획임을 밝히고, 교내외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만들어 최소 60~70%정도는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다.
- 김은상 평의원이 예전에 성균관대학교가 의과대학을 만들었을 때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고, 비전2030에서 제시된 '퀀텀점프'를 위해서는 그러한 것과 유사할 정도로 큰 사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다. 제시된 비전 2030 작성에 대한 대학의 노고를 치하하고, 대학평의회에서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하다. 14대 핵심성과지표 모두 다 잘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학생 성공이 서두에 나온 구성은 적절해 보인다고 하다. 좋은 아이템이 개발되어 이것이 학생들의 창업으로 이어지면 대학의 기부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의견 피력하다.
- 안희준 평의원이 예전 비전2020 작성할 때 제시된 세계 100위권의 목표치가 다소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 이것이 달성된 우리대학의 수준을 보면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다. 제시된 목표치 중 국제 논문수와 상위 논문비율이 함께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소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 피력하다. 아울러 이러한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교수들이 분발하는 것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높은 실적을 내는 저명인사의 합류도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리쿠르트에 나해보면 재원의 한계로 제시할 수 있는 대우에 제한이 있어 다소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하다.
- 김은상 평의원이 기부금 마련이 중요한 화두라고 하고, 지난 회의록 등에도 기부금 감소에 대한 우려를 볼 수 있다고 하다. 단순히 기부 그 자체를 위한 활동 보다는 획기적 아이디어 등을 모아서 대학의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를 확고히 하면 기부도 자연스레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고 하다.
- 강보라 평의원이 이번 비전 2030에 학생 성공을 많이 다룬 것은 고무적이거나, 최근 학생들도 많은 피로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다. 도전학기나 삼진아웃 등 학생들과 협의나 공감대 없이 추진된 정책이 많았고 다소 일방적인 느낌을 주면서 학생들이 따라가기 급급한 상황이 적지 않았다고 하다.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소통해가면서 비전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는 의견 피력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때는 서로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말하고 일부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하며, 그러한 상황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하다. 취지 자체는 학생성공을 목표로 한 것이므로 학생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며 하며 향후 정책 추진은 협의를 통해 소통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다.
- 박동희 평의원이 과거 경험으로 보았을 때 대학이 우수한 연구인력을 모셔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교수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하며, 이를 위한 처우 개선 등의 노력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다.

- 김은상 평의원이 비전의 목표 달성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목표가 우리의 일상을 따라오도록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며 현재 일상화된 온라인 수업을 재밌고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특성상 다소 어려운 학생 참여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의견 제시하다.
- 석창성 의장이 교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고, 좋은 연구인력을 많이 모셔오면서 우리 대학의 우수 연구자들의 이탈을 막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하다.
- 전미희 평의원이 '동문성공'도 비전의 요소에 포함시키면서 동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하며, 예전에 비해 10년이라는 기간이 길다고 생각되므로 단기, 중장기 등으로 세분하여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하다. 아울러 비전을 통해 동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하다. 우리 대학의 쿼텀 점프를 위해서는 동양인문학 등 우리 대학의 특화된 요소를 찾아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는 의견 피력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모델은 연구중심도 교육중심도 아닌 연구를 기반으로 한 유연한 교육플랫폼이라고 하고, 비전2030은 24개의 주제를 각 학문단위에 제시하여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큰 틀이라고 하다. 아울러 우수한 연구인력 초빙이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위해 최대한 지원 해드리고자 한다고 하다.
- 김은상 평의원이 발전기금이 확대되면 일부나마 교내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피력하고,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발전기금의 경우 집행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신중해야 한다고 하며 교내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부분도 비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다.
- 안희준 평의원이 단과대학별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예정인지를 질문하고,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일부 데이터는 단과대학에 제시되었고 향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을 천명하다.
- 석창성 의장이 평의원들에게 질의사항 또는 의견이 없는지를 재차 확인한 후 평의원 전체의 동의하에 VISION2030 수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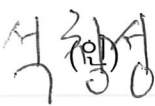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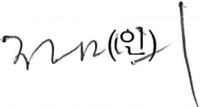
3. 성균관대학교 2020학년도 결산(안) 자문 등

- 석창성 의장이 2020학년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유동석 재무팀장이 첨부 자료와 같이 결산안을 설명하다.
- 김은상 평의원이 국회동문 기부금 6억원이 특정 의원이 기부한 것인지 묻고, 유동석 팀장이 특정 의원이 아닌 복수의 동문 국회의원들이 기부한 기부금의 합계임을 설명하다.
- 김은상 평의원이 국고보조금 수입이 감소한 이유를 묻고, 유동석 팀장이 예산 대

비로 집행금액을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 수입을 비교하면 오히려 수입이 62억 증가하였다고 하며, 교육부 국고보조금 64억 증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2억 감소가 있었다고 하다. 지방자치체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기꿈의대학사업' 중단 등의 원인으로 수입이 감소된 것이라고 설명하다.

- 박동희 평의원이 기숙사 신관 장기 차입금 규모 및 상환계획에 대하여 묻고, 유동석 팀장이 장기 차입금 규모는 2020학년도 말 현재 192억이며, 2029년까지 상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기숙사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여 2020학년도에는 상환하지 못했다고 부연 설명하다. 총무처장이 매년 상환규모가 30억 수준이나고 묻고 유동석 팀장이 매년 그 정도 상환하였으나 2020학년도에는 상환하지 못하였고 2021학년도에는 기숙사 운영 상황을 파악하여 상환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다.
- 전미희 평의원이 비전 2030을 통해 동문들이 학교를 찾아오고 싶어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동문들이 학교를 찾아오면서 자연스레 학교의 어려움을 알게 되고 기꺼이 학교를 위한 고통 분담 등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 피력하다.
- 심재용 평의원이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전면 온라인 수업 전환을 건의하는 내용을 학교측에 보내드렸는데 대학생활방역위원회 검토 결과 현재의 오프라인 유지 모드를 유지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하며, 확진자 방지를 위해서라도 오프라인 유지 모드를 재고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 제시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해당 사안은 위원장(의무부총장)을 필두로 한 전문가 집단인 대학생활방역위원회의 의견을 받고 결정한 사항으로, 아직까지는 교내 활동으로 인한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하다. 위원회에서는 학내 보다는 학외 활동에서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구성원들의 유의를 강조했다고 하다.
- 김은상 평의원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환기가 쉬우므로, 강의실 내 환기가 잘 되고 방역수칙이 잘 준수된다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다. 그리고 현재 대학 구성원의 확진자 수가 일반적인 숫자보다 적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 박동희 평의원이 학교가 다른데 보다 비교적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하며, 밀집도가 있는 기숙사와 양현관 동아리방이 아무래도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하다. 경영진 또한 이러한 코로나 상황을 잘 인지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만약 양현관 같은 인원 밀집 장소에서 대량 확진자가 나오면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히다.
- 석창성 의장이 평의원들에게 추가적인 질의사항 또는 의견이 없는지를 재차 확인한 후 평의원 전체의 동의하에 2020학년도 결산(안)에 대한 자문을 마치다.
- 이상과 같이 논의하고 의장이 17:30에 폐회를 선언하다.

붙임 제3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1부. 끝.

안대회		안희준		정덕영	<위임>
석창성		김은상			
박동희		김중환			
강보라		심재용			
전미희		오광현	<위임>		